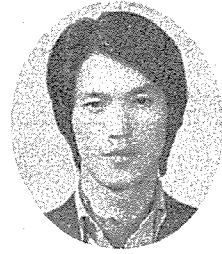


취미건강



박도천

- 대한탁구협회국제이사
- 서울중구무교동19번지 대한체육회관 305호

탁구에 찬

2.5g의 공이 0.1초만에 오락가락하는 탁구의 묘미

서울 시내에서 걸가는 사람에게 "지! 실례합니다"하고 무얼 좀 물어보려 하면 기의가 대뜸 "뭐요?" 하며 (바빠죽겠는데 빨리 말하쇼) 하는 눈초리로 물어보는 사람을 줄지에 죄인 취급을 해 버린다.

참으로 현대인은 죽을레도 시간이 없어 붓죽을 정도로 바쁘게 살아간다. 살기위해 바쁘건지, 바쁘려고 사는건지 분간이 가지 않을 정도의 일상생활에 가장 바쁜 운동 한가지를 소개코저한다.

1898년 영국의 제임스 김이 셀룰로이드를 사용해 공을 만들어 송아지 가죽을 붙인 라켓으로 칠때 그 소리가 "핑퐁"하고 난다고해서 핑퐁으로 널리 알려진 바로 탁구다.

탁구는 "가장"이란 단어가 가장 많이 붙는 종목의 하나이기도 하다. 구자가 붙는 운동 (농구, 축구, 야구, 배구, 승구... 등) 중에서 탁구공은 가장 작고 가장 가벼우며 가장 회전이 많고 가장 빠르며 남녀노소 누구라도 비가오나 눈이오나

언제라도 가장 적은 돈으로 즐길수 있으니 이처럼 "가장"이 가장 많은 운동이 현대인에게 가장 어울리는 운동이라 아니할 수 있으라.

지금은 돌아가신 할머니께서 내가 중학시절 탁구부에 들었다하니 "거뿍주걱으로 나도 칠 수 있겠더라, 밑으로 오면 밑으로 탁 받고 옆으로 오면 옆에서 탁 막고... 쉬운 운동이라 힘들지 않아 좋겠구나" 하시며 위로 8대 독자 집안의 장손이 털끝하나라도 다칠까 안달을 하시던 할머니도 탁구부 입단만은 찬성 하셨습니다.

그 후로 선수로써 10년, 지도자로써 10년 꼭 20년을 탁구와 함께 씨름해 왔지만 아직도 제일 알지 못하는 것이 탁구이기도 하다.

불과 3.7cm의 지름에 2.5g 밖에 되지않는 공이 0.1초만에 오락가락 하며 앞 뒤 양옆으로 이리 휘고 저리 돌고 하는 탁구는 구경하며 즐기기 보다는 그 빠르고 섬세한 감각을 본인이 직접 쳐 봄으로써 그 묘미를 느낄수 있는 운동이다.

그래서 탁구의 3대 요소는 바로 3대 묘미와도 직결된다.

즉 stability(안정성: 먹지않고 오래 넘길수 있는 계속성), speed(속도감), spin(회전도)가 바로 그것이다.

쉬임없이 주고받는 백구의 율동 따라 소숫점 이하를 다루는 빠른 판단과 동작이 요구되므로 자연 탁구를 오래 즐기다보면 정밀한 상황판단, 신속히 대처

하는 민첩성 순간동작의 순발력등이 저절로 배양되기 마련이다. 이토록 심신이 바쁜 운동이다보니 탁구하는 사람치고 뚱뚱한 사람을 찾아 보기 힘들어 고혈압, 성인병의 예방효과 또한 높다.

더우기 현대 탁구는 송아지 가죽으로부터 고도의 정밀 고무로 바뀌고 이질라버, 마의 특수라버의 등장으로 복잡 다양한 기술이 속출하며 스카이스브드, 드라이브다하는 기술은 그 조그만 공의 상하좌우의 빗면을 라켓으로 긁어쳐야 하므로 면도날처럼 예리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실제로 선수들은 서브연습시에는 탁구대 위에 동전같은 것을 표적으로 올려 두고 맞히는 연습도 한다.

몇해전 일선 코치생활을 할때 원로 선배 한분이 충고를 해 주셨다. "박군! 탁구대 위에 공이 맞는 부분을 비늘로 찍어보게나, 작다고 생각했던 녹색테이블이 서울운동장보다도 넓어 보일걸세 그 운동장보다 넓은 곳에 이 작은 공을 어디로 보내야 할까 밤잠을 못자고 뒤척일때 군은 탁구지도자로써의 첫발을 내 딛는 걸세"

나는 오늘도 아니 영원히 바늘 끝으로 탁구대를 찍어가며 살아 갈 것이다. 그리고 누구에게라도 권하고 싶다.

세계에서 제일 입빠른 아나운서라도 탁구 중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일단 한번 쳐 보지 않고는 알수없는 그 오묘한 세계로 초대하고 싶은 것이다.